

與野, 中 상해서 새 100년 방향 모색... 정국해법 찾나

100 임시정부 100주년

원내대표단, 임시헌장 낭독 등 행사
자율차 시험장·산업현장 등 시찰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해를 찾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12일부터 미래산업 활성화와 모색에 나선다. 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시찰로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방중 이틀째인 11일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청사를 방문,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임시의정원·임시정부 요인이 지난 1921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진을 찍은 장소로 알려진 웅안백화점을 방문했



지난 10일 중국 상해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1919년 임시의정원 첫 회의의 재연 행사를 마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기념사진을 찍은 대표단은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교민과 만나 오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12일 중국 광저우 난사구에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활력 방안을 찾은 예정이다. 중

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은 2300만대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만큼 친환경·차량공유·자율주행·스마트대중교통 등의 격변도 가득하다.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지난해 5월 난사구

와 공동으로 100억위안(약 1조6400억원)의 인공지능(AI) 산업기금을 만들었다. 이 중 30억위안(약 4950억원)을 투입해 광둥 자유무역구 내 난사 AI산업원구를 건설 중이다. AI 전문연구원·기업 연구소도 유치해 세계적인 AI 기업 집적지로 키운다는 목표다. 야망만큼 자율주행차 개발도 꾸준한 곳이다.

대표단은 13일 LG디스플레이 산업현장을 시찰한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TV 시장으로도 꼽힌다. 첨단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구매력이 상당해졌다는 업계 평가다. 실제 IHS마킷은 올해 중국 올레드 TV 시장규모는 27만대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부터 광저우 공장의 8.5세대 올레드 TV 패널을 월 6만장 수준으로 양산한다.

여야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함께 향후 100년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산업계도 대표단 일정을 통해 규제 완화 등에 기대를 모으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방중 기간 뜻을 모아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상하이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완화법 등 미래산업 관련 법안이 산재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부산 영도구 광강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조선기자재·선박 수리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역사' 한국당 '미래' 초점 행보

이해찬, 현충원 찾아 헌화·분향
황교안, 부산 조선업체 간담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자유한국당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행보를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 묘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묘소에는 박은식·신규식·홍진 선생 등 당시 임시정부 중추 인사 18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대한독립군무명용사탑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묘역 참배 후 "지난 100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의 100년이였다"며 "새로 시작하는 100년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김연철 신임 통일부장관과 만나 "올해는 한반도 평화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창의적으로(남북관계를) 헤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가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 업체 간담회에 나섰다. 4·3 보궐선거 이후 시작한 '국민 속으로-민생대장정' 두

번째 일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9일 지진 피해가 심한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 발전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주 2회가량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어 청년 스타트업 업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실시, 침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다.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념해 19시 19분에 시작했다.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석대성 기자

대법 "증거조사 끝난 후 '철회' 성립안돼"

재판 과정에서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이미 증거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채택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면서

증거조사 이후에 동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사실심 전권에 속한다"면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만큼 김씨 측이 증거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관련자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뒤늦게 정산서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사용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정산서 등이 위조나 변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산서 작성 뒤 김씨가 내용을 문제삼은 적도 없어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용진 기자

해수부,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계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물,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6억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6.6% 증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수부의 수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김남웅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수산식품 수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버닝썬 '뇌물고리' 기소 등 유착수사 가속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과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등 서서히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서 '뇌물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착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1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유착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강씨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가운데 수백만원을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면서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고발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원산업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버닝썬과 함께 '강남 3대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아레나와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46)는 최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들의 정관계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모두 떨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정용진 기자 ohngbear@